

[ 사회 ]

위기의 병·의원

해 대책은 없나

분야별 전문화로 경쟁력 제고  
진료·경영 분리 등 서둘러야

자본력과 경영 마인드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지역 병·의원들은 전문화와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밀리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강행 ▲의료시장 개방 ▲현실과 괴리된 정부 정책 등은 그나마 설자리를 잃고 있는 지역 병·의원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학병원 중심의 대형병원들은 암, 임상연구 등 전략적으로 특화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병원들과 차별화를 선언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지역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남 대학병원을 비롯한 '한국

알코올·척추 등 특화 외지환자 유치

지역환자 U턴시킴 서비스 개발을

하지만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300 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국내 전체 병원의 83.1%, 병상 기준으로는 54.1%에 달할 정도로 지역 중소병원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과 의원들은 생존과 무한 경쟁을 위해서 의료의 질과 경영 마인드를 높이고 전문화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국 최초 알코올 치료 전문인 광주 다사랑 병원과 척추 전문인 광주 새우리 병원과 광주 우리병원 등은 알zheimer 전문화로 승부수를 던져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다사랑 병원의 경우 개인 전체 입원 환자의 20%가 제주와 전북·경남·북 등 다른 지역 환자다. 전국의 알코올 환자들이 모여들자 지난 2004년에는 경기도 의왕에 분원도 개원했다. 서울·경기·충청 지

역의 환자를 겨냥한 것이다. 공격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병원을 법인화시키고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환자를 수도권 등으로 빼앗기고 있는 지역 의료시장은 이 병원에서만큼 '남의 나라 일' 인 셈이다.

병원 경영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서울에서 외부 경영 컨설턴트를 영입해 병원장들이 꾸준하게 경영 공부를 하고, 진료와 경영의 분리를 시도한 무안병원도 성공 케이스다. 무안병원의 경우 매년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남지역에서 4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의원들의 자구책 노력 외에 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도 탄력적이어야 한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도 문제다. 일례로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 침대 1개 당 10㎡ 확보 등의 중환자실 기준 강화가 현실을 모르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다.

지역 의료계는 "경쟁력이 없는 지역 중소 병·의원이 살아남지 못하면 의료복지체계의 균형성이 상실돼 1차 진료권이 동네 병원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저리 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과 ▲광고 금지 ▲의보수가 단일화 ▲영업활동 금지 등의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의료인은 "의료시장은 이미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아직까지 의료 부문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공공성만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병원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역 병·의원

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물의 날' 영산강 대청소

'영산강살리기 네트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등 12개 단체 연합) 회원 1천여 명이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나주 영산강대 인근 4km 구간에서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였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과학고 입시요강 확정

2008년도 과학고 입시요강이 확정됐다. <표>

◇광주과학고=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은 '중 2학년 1, 2학년과 중 3학년 1 학기의 수학 교과 석차백분율 평균과 과학 교과 석차백분율 평균의 상위 10% 이내 포함'이다.

일반전형은 1차 전형 배점이 내신 300점, 가산점 5점으로 지난해보다 가산점이 10점 감소했다. 일반전형에서는 1차와 2차의 성적을 합산해 모집정원의 60%까지 합격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3차 전형의 결과를 합산한다.

◇전남과학고=중학교 2,3학년 수학·과학·국어·영어교과 성적을 5%에서 10%로 변경해 지원자격을 높였다. 반면 가산점(영재교육원 수료, 각종 경시대회 입상실적)은 12점에서 6점으로 줄었다. 특별전형은 특기자 전형(올림피아드 입상 성적우수자)과 성적우수자 전형(중학교 내신 성

2008 과학고 모집인 정원

Table with 5 columns: 모집, 학교, 특별전형, 일반전형, 모집정원(계). Rows include 전국, 광주, 전남.

적 우대)으로 변경했다.

일반전형의 경우 서류전형(중학교 내신성적)으로 모집정원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수학·과학 기초 탐구능력 검사로(모집정원 1.2배수) 뽑는다. 3단계에서는 심층면접 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과학고 중 유일하게 전국 단위로 선발한다. 1단계에서 학생기록물 평가를 통해 1천 500명 이내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수학·과학)로 모집정원의 1.5배수 이내를 뽑는다. 3단계는 4박5일간의 과학캠프 및 면접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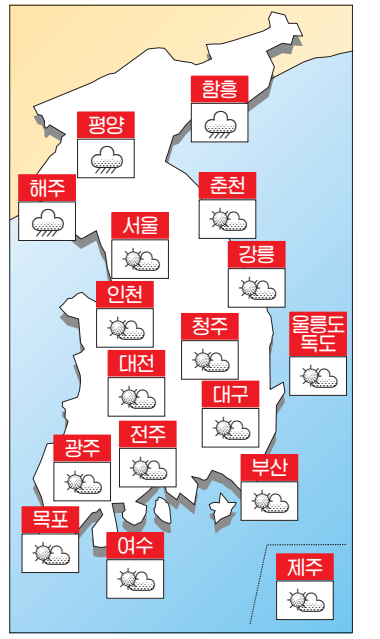
포근한 기상의 날

맑은후 차차 흐려지겠다.

3월 23일

(음 2월 5일) <전국날씨>

Table with 3 columns: 지역, 날씨, 기온. Lists cities like 서울, 부산, 광주, etc.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3.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2.5m, 목포 밀물 < 05:08, 썰물 < 10:15, 여수 밀물 < 11:47, 썰물 < 05:42

해돋이 06:33, 해질녘 18:46, 달돋음 08:50, 달질림 23:59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7 columns: 날짜, 날씨, 최저/최고. Shows weather forecast for the week of 3/24 to 3/29.

학원 중단해도 잔여기간 수강료 환불

오늘부터 시행

23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에 다니다가 등록기간에 그만두더라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수강료 환불기준을 개선하고 기숙학원 등록 요건을 명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1~2회만 수강하다가 학원 등을 그만두면 그달의 수강료를 되돌려받을 수 없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할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반환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잔여기간이 3분의2 또는 2분의1 이상일 경우 수강료의 3분의2와 2분의1 수준의 금액을 각각 돌려받는다. 잔여기간이 2분의1 미만이면 환불받을 수 없다.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수강료 환불액(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기준 적용) + 잔여 월의 수강료를 돌려받는다. 개정령은 또 입시·검정학원과 보습학원에 한해 기숙학원 설립을 허용하되 숙박시설은 수강생만 이용토록 규정했다.

피아노 교습소의 1회 교습인원은 현재 4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완화했다. /연합뉴스

화순 금호리조트에

'닥터피쉬' 체험장

환부의 각질 등을 쪼아먹어 피부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고기인 닥터피쉬(doctor fish)를 화순 온천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22일 화순금호리조트에 따르면 최근 피부병 치료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물고기인 닥터피쉬 체

험장을 개장했다.

이 물고기는 고온의 온천물에 서식하면서 피부질환자의 환부 각질 등을 쪼아 먹음으로써 염증 제거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험장은 두 곳으로 닥터피쉬 7천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요금은 1회(25분) 이용에 성인 5천 원, 소인(중학생까지) 3천 원. /화순=조성수기자 css@

광주대 교육 및 사회봉사 '최우수'

대교협, 종합평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광주대 등 전국 24개 일반대와 10개 산업대 등 46개교에 대한 2006 종합평가 및 학문 분야별 평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광주대는 영역별 평가 중 ▲교육 및 사회봉사 ▲발전 전략 및 비전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95점 이상) 및 우수(90점 이상) 대학으로 선정됐다.

광주 가톨릭대는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최우수) ▲대학경영 및 재정(우수) ▲학생 및 교수·직원(우수)

분야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대별대는 교육 및 사회봉사에서 우수대학으로 뽑혔다.

학문별 평가의 경우, 음악학에서는 호남신학대 등 11개교가 1위를 차지했다. 식품영양학은 조선대 등 5개교가 선두를 형성했다.

산업대 평가에서 초당대는 ▲발전 전략 및 비전(최우수) ▲교육 및 사회봉사(우수) 부문에서 돋보였다.

하지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대교협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황태기자 hwangtae@

기초단체 공무원 승진

광역단체장이 취소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 공무원의 승진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 북구청장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한 울산 북구 공무원 6명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orea Food Industry (주)' (국제외식산업(주)) featuring food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IBT Top 123 English Learning' (IBT토플 중123 영어영재반) featuring a woma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ega First Academy' (메가퍼스트학원).